



4면

K방산 선도 세계적 기관과 연대 강화

전주매일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음 4월 10일) 제35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바이오산업 육성 협력 강화

전북자치도, 국립축산과학원·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협약 체결
특화단지 활성화 연계협력·동물 유래 오가노이드 뱅크 구축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립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생명공학기술을 축산에 접목해 바이오신약·바이오장기 연구 등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환경친화적 축산 전환을 통한 국가정책 지원,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생명공학 등 바이오산업 실용화 기술 개발 보급 및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으로 오가노이드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및 유관기관들과 지난 두 차례의 협약을 통해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바이오특화단지 활성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가운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동물 유래 오가노이드 뱅크 및 이를 기반한 반려동물 치료제 등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력 등을 담고 있어 앞으로 전북자치도 바이오 산업 집약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반이 오가노이드를 만나 국내 최고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바탕으로 인체를 위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더해진다면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생명경제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숨으로 얼굴 감싸는 듯... 눈 덮인 덕유산 향적봉 철쭉



전국을 비로 적신 지난 15~16일, 7cm의 적설량을 보인 덕유산 향적봉(1614m)에는 매표를 내민 철쭉과 자주병꽃나무가 갑작스런 추위에 수줍은 듯 숨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운영체제 돌입

전북자치도, 10월 15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구축
호우 등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 506곳으로 확대 지정
특보 예보 시 재해우려지역 등 사전 예찰 위험요소 제거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태풍·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 내 유관기관인 전북경찰청과 육군제35보병사단 등 17개 기관과 협력기관인 전북지움방재단 연합회 등 6개 기관이 모두 힘을 모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연재난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이는 올여름 장마 기간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고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폭염, 폭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해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집중호우 대비 급경사지,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주요 시설물 1만1,477개소 점검, 재해복구 사업장 433개소에 대한 위기 전 주요 공정 완료 및 준공을 추진하는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기존 382개에서 50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주민 대피계획(대피경로, 대피장소 등)을 수립했으며,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사태 우려 지역, 침수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과 함께 대피 훈련을 시행해 대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지하차도에는 공무원, 경찰 포함 담당자 4명을 지정해 비상시에 즉각 대처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7월 침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바뀐 국토부 '도로 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하차도 통제공준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추가로 전주시 하천 주변 지하차도 3개소에 8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내부에 핸드레일, 비상 사다리, 안내 표지판 등 인명 탈출 시설을 위기 전까지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특보 예보 시에는 재해 우려 지역 및 산간·계곡 등 취약지역 사전 예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특보 발표 시에는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출입통제를 시행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윤종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극한 강우와 태풍으로부터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주변 공사장 점검을 추진하고, 집중 안전 점검 기간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을 빈틈없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및 후속 조치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 교육과정 지원 전문 시스템 강화'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제5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6일 전북교육청 1층 기획·운영실에서 제5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자리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 탄소

중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전북 진로·진학 교육 실태와 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탄소중립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탄소중립교육 전문 시스템 강화 △학교 구성원의 전체 참여를 통한 운영 △지속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과 학교의 연계성 강화 등 전북과 국내의 탄소중립교육 사례 분석, 전문가와 교사

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FGI)를 통해 교육과정 설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탄소중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를 지난 1월부터 시행, 이를 근거로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 수립해 탄소중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매일 캠페인